

지속된 코로나19와 북한의 대외무역: 2021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

김규철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kyoochul@kdi.re.kr

I. 서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각국의 방역 정책에 조금씩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 간 봉쇄 등 여전히 강력한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같은 국가도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추진하며 단계별 거리두기로 코로나19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육상으로의 이동을 금지한 지도 2년이 지났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역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가 북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0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대북제재의 충격에 코로나19 타격까지 더해져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렸다. 국경봉쇄 등 강력한 방역 조치로 인해 무역액이 전년에 비해 70%나 감소한 것이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는 상태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21년에도 국경의 빗장은 풀리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고, 북한은 방역을 최우선 순위로 내세우며 외부 지원마저 고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어떠했을까? 2020년에 비해 더 악화되었을까? 아니면 바닥을 치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였을까? 본고는 북한의 대외무역 데이터를 분석하여 2년이나 지속된 코로나19 사태가 2021년 북한의 대외교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우선 북한의 수출과 수입, 무역수지 총량의 추세와 그 의미를 살펴본다. 그 다음 북한의 주요 수출품과 수입품이 무엇인지, 그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여 2021년 북한 무역의 특징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밀무역 등 세관통계가 담지

못하는 비공식 대외교역의 내용 역시 정리하여 2021년 북한 무역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본다. 2021년 북한의 비공식무역에 대한 내용은 주로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활용하였으며, 그 외에 북한의 밀무역을 감시하는 해외 연구소의 보고서 역시 분석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2022년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해 전망한다.

2010년 이전까지 북한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었던 한국¹⁾과 일본²⁾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이후 북한의 교역은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되었다. 게다가 2016년부터는 적은 규모로나마 북한과 거래했던 국가들도 UN 안보리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북한의 교역 상대국은 중국과 러시아로 한정되었다. 이후 북중교역과 북러교역만 분석해도 북한의 대외교역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KOTRA의 2020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에 따르면 북한 무역의 88%가 중국과 이루어진 것이며, 북러무역의 비중은 약 5%였다. 그 외의 국가들은 북한과의 교역 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규철(2021)은 북한의 對중국, 對러시아 무역을 바탕으로 2020년 북한의 무역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그렇다면 2021년에도 對중국, 對러시아 무역만 살펴보면 될까? 2021년 북한의 대외무역 역시 2020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다른 국가와 교역을 재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2021년에 북한은 러시아와의 교역을 거의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³⁾ 이에 2021년 북한은 중국과만 대외무역 거래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2021년의 북중무역이 곧 북한의 대외무역의 전부라고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II. 2021년 북한의 對중국 무역

1. 북중무역 개괄

현재 북한의 대외무역을 관통하는 두 개의 키워드는 대북제재와 코로나19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2016년 이후 2017년 연말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점차 강화되었다. UN 안보리 대북제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친 시점은

1)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5.24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중단되었다.

2)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남치자 문제로 2006년에 대북수입이, 2009년에 대북수출이 금지되었다.

3) KITA의 러시아 무역 통계를 통해 북러무역을 살펴본 결과 2021년 1~10월까지 북한은 총 4만 1천달러의 품목(화장품, 고무제품, 기계류)을 러시아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북러 무역액인 4,300만달러에 비하면 2021년 무역액은 유의미한 규모가 아니므로 2021년 북러무역은 분석에서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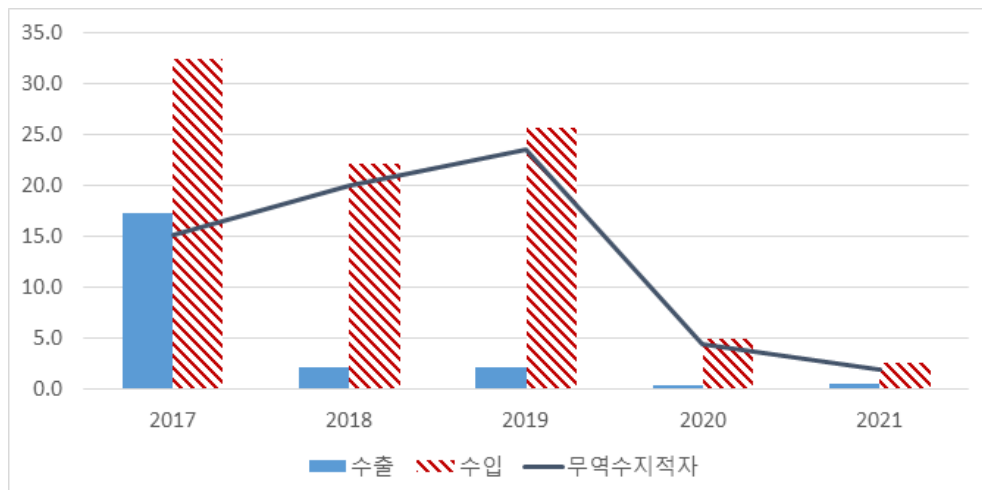
북한산 무연탄 수출의 민생용 예외조항이 삭제된 2017년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2017년에도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4차례나 합의되었고, 2018년부터의 강력한 대북제재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2019년 연말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조치로 2020년 2월부터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했고, 만 2년이 되어가도록 여전히 북·중 사이의 국경은 열리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2021년 북한의 대중무역을 살펴보자.

[그림 1]은 최근 5년간 북한의 대중무역(수출, 수입, 무역수지) 추세를 보여준다. 중국 해관통계에 나타난 2021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액은 3.2억달러였다. 이는 2020년 무역액(5.3억 달러)의 59% 수준이다. 수출과 수입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2021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0.58억달러로 2020년 동일 기간 수출액인 0.48억달러에 비해 약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1년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2.6억달러로 2020년 동일 기간 수입액인 4.91억달러에 비해 47%나 감소하였다. 2021년 북한 대중무역의 감소분은 대중수입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20년 북한의 무역을 평가한 연구와 보고서들은 ‘붕괴’, ‘최악’, ‘폭락’ 등 부정적인 단어들로 이를 표현했다. 2017년 이후 북한의 무역액이 대북제재로 크게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라는 부정적인 상황이 더해져 1990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기 때문이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처럼 보이던 북한의 대외무역은 2021년에는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주식시장의 용어가 떠오를 정도로 규모로 따지면 2020년에 비해 더 감소하였다.

[그림 1] 북한의 대중 수출, 수입 및 무역수지 적자

(단위: 억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2. 1. 21).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북한의 대중수출은 2018년에 대북제재로 전년 대비 88%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국경봉쇄로 전년 대비 78% 감소하는 두 번의 큰 충격을 겪었다. 북한의 대중수입은 대북제재 이후 2018년에 전년 대비 32% 감소했으나, 2019년에는 오히려 16%가 증가하는 등 대중수출에 비해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에 81%가 감소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의 타격이 확인되었다. 대북제재 이후 수출 감소가 수입 감소에 비해 크게 나타남에 따라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도 2017년 이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봉쇄되고 대중수출과 대중수입 모두 유사한 비율로 감소하면서 2019년에 23.6억달러에 이르던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2020년에는 4.4억달러로 81%나 감소하게 되었다. 2021년 북중무역에서 전년 대비 북한의 대중수입이 절반 정도로 줄었으나 대중수출은 일부 증가해 2021년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2억달러로 2020년에 비해 54%나 감소하였다.

북중간의 상품 교역은 주로 미 달러화나 중국 위안화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와 북한 내부의 장마당 환율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북한의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달러 환율과 위안화 환율은 2020년 4분기에 크게 하락하였으며, 지금까지도 하락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재 이후에도 1달러에 북한돈 8천원 수준이던 달러화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 12월에는 5천원 미만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⁴⁾ 1위안에 1,200~1,300원(북한 원화) 수준이던 중국 위안화 환율은 600원 정도로 거래되는 것으로 보도⁵⁾된바 있다. 북한 당국이 국경봉쇄를 풀고 무역을 재개할 기미가 보이면 환율이 일부 오르고, 반대로 국경통제를 강화하는 등 무역 재개가 요원해 보이면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단기적인 등락일 뿐 ‘왜 2021년 10월에 환율이 단기간에 40~50%가량 하락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가설들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하여 북한주민이 보유한 외화를 흡수하려는 목적으로 외화 사용 금지 및 돈표 발행 등을 통해 환율을 의도적으로 하락시킨다는 주장⁶⁾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북한주민들의 외화선호 현상이 줄어드는 역(逆)달러라이제이션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의견⁷⁾도 있다.⁸⁾

[그림 2]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월별 수출액과 수입액의 추이를 보여준다. 2020년 2월 코로나19로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수출과 수입 모두 급격히

4) 『데일리NK』, 북한시장동향(<https://www.dailynk.com/北장마당-동향>).

5) 『데일리NK』, 「北, 국경통제 강화 지시에 달러 환율 '폭' ...무역재개 포기 분위기」, 2021. 11. 25.

6) 김병연, 「북한의 외화흡수 작전과 김여정의 '실천」, 중앙시평, 2021. 1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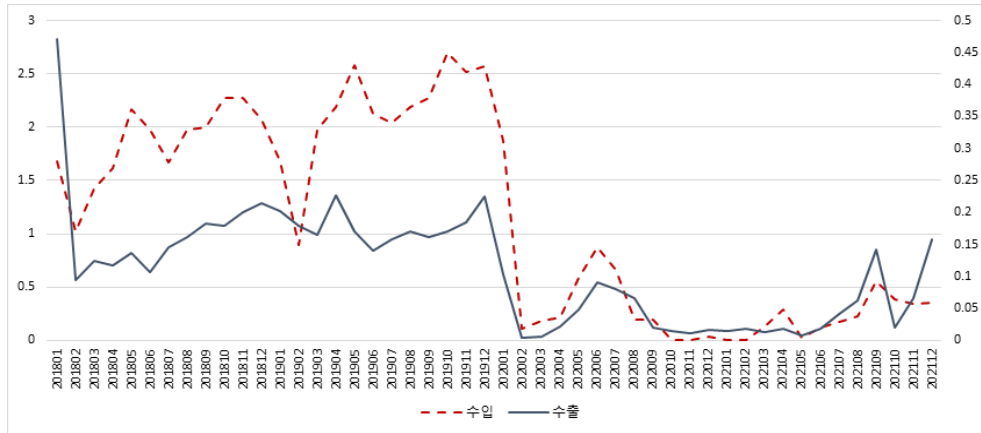
7)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11월호의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북한의 역달러라이제이션: 실태, 함의 그리고 전망」을 참조하라.

8) 2021년 북한 내부의 환율 변동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본 호에 실린 정승호(2022)를 참조하라.

줄어들었으며, 2020년 10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수출과 수입이 모두 거의 중단된 상태로 지속되었다. 2021년 7월 이후로는 북한의 대중 수출과 수입 모두 회복되는 추세로 반전되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북한의 대중수출은 크게 증가해 2021년 9월과 12월에는 각각 0.14억달러, 0.16억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대북제재 이후, 코로나19 사태 이전이라 할 수 있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북한의 월평균 대중수출액이 0.17억달러라는 점에서 수출은 일정 부분 회복될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중수입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월평균 2억달러)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북한의 월별 대중 수출액, 수입액

(단위: 억달러)



주: 수입은 좌축, 수출은 우축.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2. 1. 21).

2. 주요 상품별 분석

가. 북한의 대중 수출품

〈표 1〉은 2021년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 상품과 해당 상품의 수출액과 수출 비중, 해당 상품의 2020년 수출액과 점유율 그리고 2020년 대비 2021년 수출액 비율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표 1〉 2021년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 상품

순위	HS code	품목	2021년 수출액(비중) (A)	2020년 수출액(비중) (B)	전년 대비 수출액 (A/B)*100
1	7202	합금철	2,682만달러(46.3%)	1,073만달러(22.4%)	250%
2	2716	전기 에너지	1,694만달러(29.3%)	1,185만달러(24.7%)	143%
3	9108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	334만달러(5.8%)	679만달러(14.1%)	49%
4	5002	생사	272만달러(4.7%)	-	-
5	1105	감자 분말 등	252만달러(4.3%)	-	-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2. 1. 21).

2021년에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합금철(HS 7202)’로 2021년 수출액은 2,682만달러였으며, 수출 비중은 46.3%를 차지했다. 합금철은 2020년에도 주요 수출품(2위)이었던 상품이다. 2021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2.5배로 상승하였다. 북한의 대중 합금철 수출은 하반기(7~12월)에 집중되었는데, 12월에는 43%인 1,173만달러가 수출되었다. 2017년 이후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합금철(ferro-alloy)을 HS 6단위로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규소철(ferro-silicon; HS 720221)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규소철은 대북제재 이후에도 북한이 중국에 꾸준히 수출하던 상품으로, 해당 품목이 UN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품목인지에 대해 각기 다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철과 관련 품목(iron and steel products) 수출을 금지한 대북제재는 UN 안보리 결의 2371호인데, 해당 제재 조항에서는 ‘..., iron, and iron ore, ...’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었다. 통계청(2019)은 규소철(페로실리콘; HS 720221)이 대분류상 제재 대상인 HS코드 72에 속하나 중국정부에서 금속이 아닌 실리콘으로 해석하여 수입을 지속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임수호(2019)는 합금철(HS 7202)은 북한의 수출 제재 품목이 아닌 것으로 보았고, 복수의 매체⁹⁾에서도 규소철을 대북제재 위반 품목이 아닌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UN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는 2021년 9월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¹⁰⁾를 통해 HS코드 72 전체(7201-7229)가 대북제재 위반 품목임을 명시하였고, RFA(자유아시아방송)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와의 질의를 통해 “페로실리콘은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품목”임을 확인¹¹⁾하였다.¹²⁾ 이처럼 제재 이후에도 꾸준히 수출되던 규소철이 명확하게 대북제재 위반 품목으로 지목됨에 따라 이후 중국이 해당 상품을 금수품목으로 지정할지 여부가 관심 사항이다.

9) VOA(<https://www.voakorea.com/a/6240281.html>), 뉴시스(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1022_0001623395) 등

10) S/2021/777, Sep 9, 2021.

11) 『자유아시아방송』, 「대북제재위 “북 규소철 대중 수출은 명백한 제재위반”」, 2021. 10. 20.

12) 『중앙일보』, 「北, ‘유엔 제재’ 페로실리콘 거래 지속…중국 수출액 절반 넘어」, 2021. 12. 21.

합금철 다음으로 많이 수출된 상품은 ‘전기 에너지(HS 2716)’로 나타났다. 전기 에너지는 2020년에도 전체 수출액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가장 많이 수출된 상품이었는데, 2021년에는 전체 수출 중 29.3%의 비중을 나타냈다. 2021년 전기 에너지의 수출액은 1,694만달러로 2020년과 비교해 수출액이 43%나 증가했다. 단가는 2020년 \$0.039/kWh에서 2021년 \$0.041/kWh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수출 물량(전기 에너지의 경우 물량의 단위가 kWh로 나타남)이 2020년 3.0억 kWh에서 2021년 4.1억 kWh로 증가한 것이 수출액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른 수출 품목은 특정 월에만 수출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기 에너지는 2020년 4월 이후로 2021년 12월까지 빠진 기간 없이 매달 수출되었다. 전기 에너지는 전선을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국경봉쇄 등 코로나19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2021년 북한이 중국에 세 번째로 많이 수출한 상품은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HS 9108)’이다. 해당 품목은 대북제재로 임가공 의류의 수출이 금지되자 대체 임가공 상품으로 발굴된 것이었다. 2017년 183만달러에서 2019년에는 4,919만달러로 수출이 급등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679만달러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여전히 주요 수출품으로 나타났으나 수출액은 전년 대비 절반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가 수출된 중국의 지역은 지린성이 유일했으나, 2021년에는 산둥성이 277만달러(83%), 지린성이 57만달러(17%)로 산둥성이 처음으로 해당 상품의 수출지로 나타났다.

북한의 대중 수출품 중 4위를 차지한 것은 ‘생사(HS 5002)’로 나타났다. 생사는 2017년에 8만 6천달러의 수출이 있었으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수출된 적이 없는 상품이었는데, 2021년에는 272만달러가 수출되어 주요 수출품으로 부상하였다. 생사(HS 5002)와 유사한 제품으로 견 웨이스트(HS 5003) 역시 2021년에 103만달러나 수출되었다. 생사와 견 웨이스트는 섬유류 상품(HS 50-63)으로 분류되어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 2375호가 UN 회원국에 북한산 수입을 금지한 품목임에도 2021년에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의 대중수출 5위 품목은 ‘감자 분말 등(HS 1105)’이었다. 감자 분말은 대북제재 이후 한 번도 수출된 적이 없는 상품이였으나 2021년에 252만달러나 수출되었는데, 4월에 지린성에 48만달러, 9월에는 산둥성에 204만달러가 수출되었다. 지린성과의 교역은 일반교역(ordinary trade)이었으나, 산둥성으로의 수출은 보세지역을 통한 중계무역(Entrepot trade by bonded area)으로 분류되어 있어 북한산 감자 분말이 타국가로 재수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2021년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들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는 전기 에너지, 합금철,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 등 2020년에도 주요 수출품이었던 품목이 있으나 생사,

감자 분말 등 수출 상품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들도 있었다. 2020년에는 주요 수출 품목이었으나 2021년에는 수출이 급감한 상품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텡스텐광과 그 정광(HS 2611)’, ‘가발, 가수염 등(HS6704)’을 꼽을 수 있다. 텡스텐광과 그 정광은 대북제재 이후 꾸준히 수출 상위 품목에 들던 상품이었으나 2021년에는 수출액이 전년 대비 13%로 감소했고, 제재 이후 대표적인 임가공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가발, 가수염은 2020년 223만달러에서 2021년 37만달러로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그 외에도 ‘기타 품목(HS 9804)’ 상품의 수출이 340만달러(2020년)에서 1만달러(2021년)로 크게 줄었는데, 해당 품목은 인적왕래 중 세관에 신고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경봉쇄로 인적 교류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외에 수출의 감소가 컸던 품목들은 인조흑연(HS 3801),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HS 2613), 플리트 유리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HS 7005), 잉곳(HS 7206) 등 산업 중간재로 활용되는 품목들과 전사용 기구와 모형(HS 9023), 신발류, 신발류 부분품(HS 6403, 6406) 등 임가공 수출품으로 나타났다. 산업 중간재 품목의 수출 감소는 코로나19 사태로 해당 품목의 수입이 어려워지고, 수급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수출을 줄이거나 중단시킨 것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나. 북한의 대중 수입품

2021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주요 품목에 대한 정보는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주요 수입품의 경우 HS코드 2단위로 분류한 것들도 있다. 2단위로 분류된 상품은 4단위 분류 상품보다 포괄적인 상품군으로, 2단위로 분류하는 것이 상품군의 특징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경우 이 방식을 채택하였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제품(HS 39)’은 HS 3901~3926으로 세분화되며, 4단위로 각각 상품의 수입액을 구분하면 수입 상위 5위 안에 포함되지 않으나 플라스틱 제품(HS 39)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상품으로 분류할 경우 수입액이 가장 많은 상품으로 나타났다. ‘비료(HS 31)’와 ‘담배와 담배 대용물(HS 24)’ 역시 HS 2단위로 분류하는 것이 수입품으로서 의미를 더 명확히 하므로 이와 같이 구분하였다.

2021년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상품은 플라스틱 제품(HS 39)이다. 전체 수입액의 13.9%를 차지하였으며, 전년과 유사한 수입액을 보였다. 제재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연간 2억달러가 넘는 플라스틱 제품을 수입하였으나 2020년 이후로 3천만달러 수준의 플라스틱을 수입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은 다양한 산업의 중간재로 쓰이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플라스틱 수입의 급감은 북한의 전반적인 산업 생산이 부진에

〈표 2〉 2021년 북한의 주요 대중 수입 상품

순위	HS code	품목	2021년 수입액(비중) (A)	2020년 수입액(비중) (B)	전년 대비 수입액 (A/B)*100
1	39	플라스틱 제품	3,626만달러(13.9%)	3,579만달러(7.3%)	101%
2	31	비료	2,421만달러(9.3%)	545만달러(1.1%)	444%
3	24	담배와 담배 대용물	2,380만달러(9.1%)	3,926만달러(8.0%)	61%
4	3004	의약품	1,864만달러(7.2%)	1,719만달러(3.5%)	108%
5	4011	고무로 만든 타이어	1,516만달러(5.8%)	1,807만달러(3.7%)	84%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2. 1. 21).

빠져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플라스틱 제품(HS 39)을 제품의 가공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흥미로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플라스틱 일차제품(HS 3901~3914)의 수입액은 2,151만달러로 2020년의 1,152만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일차제품이 아닌 것, 즉 일차제품을 가공한 품목(HS 3915~3926)의 수입은 2021년에 1,474만달러를 기록해 2020년의 수입액 2,427만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그림 3]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의 플라스틱 제품을 가공 단계별로 구분할 경우 수입 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준다. 일차제품(HS 3901~3914)의 수입 비중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5% 내외였으나 2020년에는 32%, 2021년에는 59%로 크게 증가한 반면, 가공제품(HS 3915~3926)의 비중은 2017~19년에 85% 내외에서 2021년에는 41%까지 하락하였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이후 플라스틱 원료(일차상품)의 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플라스틱 상품의 수입 비중이 감소한 것은 플라스틱 관련 품목의 수입 의존도를 줄여 국산화를 꾀하려는 북한 당국의 정책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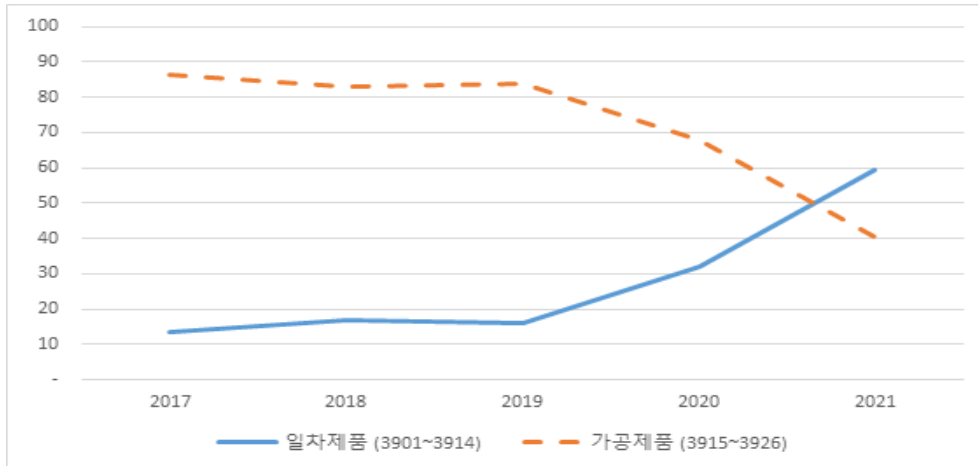
북한의 대중 수입품 중 상위 2위 품목은 비료(HS 31)로 나타났다. 2021년의 수입액은 2,421만달러로 지난해의 545만달러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1년에 북한의 비료 수입이 특별히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제재 이후 북한의 비료 수입액은 2017년에는 3,444만달러였고, 2018년에는 8,477만달러, 2019년에는 4,299만달러로 나타나 2021년의 수입을 이 시기와 비교하면 적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오히려 2020년이 북한의 비료 수입이 매우 저조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농진청은 2021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7% 증가한 469만톤으로 추산¹³⁾하였다. 작년 연말 북한 당국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치국 회의에서 농업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화자찬한 바 있다.¹⁴⁾ 이는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나아진 비료 수급 상황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13) 농촌진흥청, 「올해 북한 식량작물 469만톤 생산, 전년 대비 29만 톤 증가」, 2021. 12. 17.

14)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2022)

[그림 3] 북한의 플라스틱 제품(HS 39)의 가공 단계별 수입 비중

(단위: %)



자료: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2. 1. 21).

북한이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한 품목은 ‘담배와 담배 대용물(HS 24)’이다. 2020년에는 3,926만달러를 수입했으나 2021년에는 이의 60% 수준인 2,380만달러를 수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봉쇄된 상황에서 기호품인 담배의 수입이 지속된다는 것이 특이한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과 문화를 연구해 온 전문가는 “북한에서 담배는 기호품을 넘어서 생활필수품”이라고까지 언급¹⁵⁾한 바 있다. 북한에서 담배는 ‘화폐’의 역할까지 한다는 증언도 있다. 뇌물을 줄 때 현금 대신 담배를 전달한다는 것이다.¹⁶⁾ 이처럼 담배가 북한 주민들에게 필수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국경봉쇄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네 번째로 많이 수입한 품목은 ‘의약품(HS 3004)’이다. 2020년에 1,719만달러와 유사한 수준인 1,864만달러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뜻 보면 북한이 많이 수입한 품목이 의약품이라는 것은 코로나19 사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의약품을 세분화된 코드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 코로나19 사태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품목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비타민이나 비타민 함유 제품(HS 300450)’의 2021년 수입액이 252만달러로 전년의 123만달러의 2배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고위층이 쓸 것으로 예상¹⁷⁾되는 의약품(예를 들면 인슐린 HS 300431)의 수입이 전년에 비해 크게

15) 『중앙일보』, 「[이영종의 평양오디세이] “자체 생산 담배 브랜드만 수백 종류”…북한은 흡연 천국」, 2019. 10. 4.

16) 『동아일보』, 「“북서 담배는 ‘돈’이란다네”…‘담배 천국’ 북한 이야기[송홍근 기자의 연박상평영] (6)」, 2019. 12. 9.

늘어난 것도 특이할 만한 점이다. 의약품 수입액이 전년 대비 유지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이 없는 비타민 관련 수입이 2배 이상 늘었으며 인슐린 등 특수 의약품의 수입 역시 수십 배 늘었다는 것은 코로나19 외에 특별한 목적이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자연스레 일반 주민들을 위한 의료행위에 필요한 항생제 등 일반 의약품의 수입은 일부 줄어들었다. 게다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체의학용 백신(HS 300220)’은 2020년 96만달러 수입되었으나 2021년에는 전혀 수입이 되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포함된 ‘진단용 시약(HS 3822)’의 수입이 2020년 47만달러에서 2021년에는 19만달러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의약품이 2021년 북한의 주요 수입품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코로나19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2021년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5번째로 많이 수입한 품목은 ‘고무 타이어(HS 4011)’로 나타났다. 타이어는 승용차, 버스, 트럭 등 차량용 운송수단의 필수 소모품으로, 국경봉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입되던 품목이다. 고무 타이어 수입액 중 82%인 1,243만달러가 버스용·화물차용(HS 40112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가 승용차용과 농업용 차량과 기계용 타이어로 확인된다. 이는 북한에서 승객 및 화물 운송을 책임지는 버스와 화물차의 운행을 위해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무 타이어의 수입과 연관시켜 볼 수 있는 것이 북한의 고무 수입이다. 고무 타이어의 원료로 볼 수 있는 천연고무(HS 4001)와 합성고무(HS 4002)의 수입액이 2021년에 각각 1,016만달러, 196만달러로 전년 대비 2.7배, 7.8배 증가한 것이다. 완제품인 고무 타이어의 수입을 줄이는 대신(2021년 수입액은 2020년의 84%) 원료인 고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타이어를 생산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020년에는 주요 수입 품목이었으나 2021년에 주요 수입품에서 탈락한 상품으로는 ‘대두유(HS 1507)’가 있다. 대두유는 2020년에 대중수입 1위 상품이었다가 2021년에는 수입의 90%가 감소하였다. 대두유, 즉 콩기름은 북한에서도 단백질과 비타민 F 등 영양소를 공급하는 필수 식료품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제재 이후에도 연간 1억달러의 대두유 수입이 지속되었으며, 국경봉쇄 첫 해인 2020년에도 6,583만달러어치를 수입하여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전해와 비교하여 10%밖에 되지 않는 676만달러로 대중수입이 크게 하락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대두유의 원료인 ‘대두(HS 1201)’의 수입이 2020년에는 전무했으나 2021년에는 590만달러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대두의 수입액은 2017~19년 기간에도 100만달러를 넘긴 해가 없었다. 2021년 ‘원료’인 대두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상품’인 대두유의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17) 『동아일보』, 「北, 국경폐쇄에도 최고위층 위해 비타민·로열젤리 수입[주성하의 북카페]」, 2021. 8. 29.

는 것은 앞서 플라스틱 '원료'의 수입이 증가하고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이 감소한 일종의 국산화의 모습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플라스틱 제품과 고무 타이어 그리고 대두유 등 주요 수입상품과 이와 대응되는 원료의 수입 패턴 변화를 통해 북한의 국산화 시도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대외경제 부문에서 수입의존도를 줄여나가고, 금속과 화학 분야에서 자체 원료를 활용하며, 경공업에서도 원자재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는 등¹⁸⁾의 정책적 강조점이 실제로 무역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다.

2021년에 북한의 대중 '밀가루(HS 1101)' 수입액은 34만달러(980톤)로, 2020년 수입액인 3,548만달러(11만톤)의 1%가 채 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식량 상품인 옥수수(HS 1005)와 쌀(HS 1006)의 2021년 대중수입은 '0'으로 확인된다. 2020년 북한의 쌀과 옥수수 그리고 밀가루 수입은 2019년에 비해 각각 1%, 5%, 48% 수준에 그쳤는데, 2021년에는 수입되지 않거나 1% 미만으로 수입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10년 동안 북한이 곡물을 전혀 수입하지 않은 것은 2021년이 처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2020년이 풍년이었던 해도 아니었다. 농진청이 추정한 2020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40만톤으로 2012년 이후 최소치였으며,¹⁹⁾ FAO 역시 2020년 양곡연도(2020년 11월~2021년 10월)의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최근 5년 평균 수준인 556만톤으로 전망하였고, 110만톤의 곡물이 외부로부터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²⁰⁾ 게다가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밀수가 활발해 공식 통계 외에도 북한으로의 곡물 도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육로를 통한 밀수는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이는 식량의 비공식 도입이 완전히 차단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쌀과 옥수수, 밀가루 등 식량 수입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식품 소비재인 대두유와 설탕(HS 1701), 글루탐산 나트륨(인공 조미료, MSG; HS 29224220)의 대중수입이 전년에 비해 각각 85%, 7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었음에도 2020년도에는 유지되었던 북한의 식료품 수입이 2021년 들어 완전히 중단되거나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북한의 대중수입을 상품 차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원료의 수입은 늘어난 반면, 제품의 수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에 가까운 플라스틱의

18) 이석기(2021).

19) 농촌진흥청, 「북한, 올해 식량작물 440만 톤 생산...전년대비 24만 톤 감소」, 2020. 12. 18.

20) FA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od Supply and Demand Outlook in 2020/21(November/October)," GIEWS Update, 2021.

수입은 줄어든 반면, 원료에 가까운 플라스틱 일차상품의 수입은 늘었고, 고무 타이어의 수입은 줄어들었으나 원료인 천연고무와 합성고무의 수입은 증가했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이 상품의 수입 의존도를 줄여 비용절감과 국산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식량 수입은 중단되었으나 식량 생산에 필요한 비료의 수입은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점과 식용유 수입은 크게 줄어든 반면 원료인 대두의 수입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식료품 분야에서도 자력갱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국경봉쇄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유지되었던 식품 소비재의 수입이 2021년에는 크게 감소하였다. 쌀과 옥수수과 같은 식량의 수입이 중단된 것은 물론이고 밀가루, 설탕, 대두유, 조미료와 같은 식료품의 수입도 크게 줄었다. 이를 통해 정반대의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첫 번째는 북한 내부의 식량과 식료품 상황이 크게 나빠지 않기 때문에 수입을 줄였다²¹⁾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식용유, 설탕 등 식료품의 장마당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뉴스에 따르면 북한의 식료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다른 수입품에 비해 식량과 식료품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는 또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장기화된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외화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일치하는 점이 있다.

III. 북한의 비공식무역

지금까지 중국의 해관통계를 통해 북한과 중국 사이의 공식적인 무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밀수를 포함하여 비공식무역은 북한 무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수치화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어 그동안 분석에서 제외되어 왔다. 본고 역시 자료의 한계상 북한의 비공식무역을 정확하게 수치화하여 분석하기보다 여러 자료와 연구에 기초하여 2021년 북한의 비공식무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비공식무역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북중간의 국경을 봉쇄하고 거의 모든 물자의 육상 이동을 금지하였다. 이로 인해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식량, 전자제품 등 다양한 품목을 거래하던 밀무역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북한에서 비공식무역은 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만 남은 상태로 보아도 무방하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패널 보고서는 해상의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이 불법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여 북한의 비공식 무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21) 정은이(2020).

1. 북한의 석탄 밀수출

2010년대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었던 석탄은 2017년 8월에 통과된 UN 안보리 결의안 제2371호에 의해 거래가 전면 금지되었다.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제재 이후에도 석탄의 밀반출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석탄이 25회 석탄이 밀수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²²⁾ 2020년의 보고서에는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370만톤, 3억 7천만달러의 석탄이 밀수출된 것으로 확인된다.²³⁾

2021년에 발표된 연례보고서(final report)²⁴⁾와 중간보고서(midterm report)²⁵⁾에는 2020년과 2021년 상반기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2021년 3월에 발표된 연례보고서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밀수출한 석탄이 250만톤이라고 밝혔으나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김석진(2021)은 석탄의 국제시세가 이전에 비해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2020년 북한의 석탄 밀수출액은 2억달러를 밑돌 것으로 추정했다. 2021년 9월 9일에 발표된 중간보고서는 2020년 북한의 석탄 밀수출 횟수가 636회에 이르며 최소 480만톤의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네 달 동안 최소 41회의 석탄 밀반입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최소 36.4만톤의 수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수치는 2020년의 석탄 밀수출 횟수와 물량을 월평균으로 계산한 50회, 40만톤과 비교해 보면 크게 하락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석탄 밀수출이 활발해진 사례를 제시하며 이후 밀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²⁶⁾ 2021년 연말에는 북한의 대중 석탄 밀수출에 대한 정황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중국 최대의 석탄 산지인 산시성에서 홍수가 발생해 중국 내 석탄 가격이 폭등²⁷⁾하였고, 호주산 석탄 금수조치로 중국 내 석탄 값이 크게 상승²⁸⁾하여 중국의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의 무역회사들이 중국에 석탄을 밀수출 하였다는 것이다.²⁹⁾

2021년에 북한이 밀수출한 석탄의 양과 금액에 대한 추정치는 아마도 2022년 상반기에 발표되는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제시될 것이다. 상반기의 추정치를

22) S/2019/171 (March 5, 2019).

23) S/2020/151 (March 2, 2020).

24) S/2021/211 (March 4, 2021).

25) S/2021/777 (Sep 9, 2021).

26) 위 보고서, p.32, paragraph 85-86.

27) 『뉴데일리』,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중국 전력난 때문에 북한 석탄 밀수출 증가할 것”, 2021. 10. 14.

28) 『중앙일보』, 「중국, 호주 혼내려다 되레 부메랑…석탄값 연일 최고치», 2021. 10. 15.

29) 『자유아시아방송』, 「중국 전력난에 북 무역회사들 석탄 밀수출로 외화벌이 증가», 2021. 10. 8.

단순 연장하여 2021년 북한의 석탄 밀수출 규모를 전망하면 작년 규모의 20% 수준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하반기에 석탄 밀수출이 상반기에 비해 더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2020년 밀수출 추정치인 480만톤에는 크게 못 미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이에 2021년 북한이 석탄 밀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는 2020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2. 북한의 정유제품 도입

2017년 12월에 결의된 UN 안보리 결의안 제2397호는 북한의 정유제품 도입량을 50만배럴로 감축시켰다. 이는 북한 정유제품 수입의 90% 정도를 차단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해당 안보리 결의안이 발표된 이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도입한 정유제품의 물량에 대한 추정치를 세 가지 기준(유조선 적재 용량의 33%, 50%, 90%가 적재되었다고 가정)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2018~20년의 밀수 물량 추정치는 2019~21년까지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³⁰⁾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이하 RUSI)는 보고서를 통해 2021년 북한의 정제유 밀수 물량을 추정하였다.³¹⁾ RUSI는 1~4월의 기간 동안에는 북한의 정제유 밀수가 거의 없었으나 5월 이후로는 최소 36회의 해상 운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기간 동안 도입한 정제유 물량은 적재용량의 90%가 실렸을 경우 67만배럴로 계산되었다. 수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조선에 정유제품을 최대한 적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적재 비중은 높았을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³²⁾ 따라서 적재 용량의 90%를 북한의 정제유 밀수입량으로 가정하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도입한 정유제품 물량³³⁾을 더하여 북한의 총 정제유 도입 물량을 계산하면 아래의 [그림 4]와 같다. RUSI의 또 다른 보고서³⁴⁾에서는 2020년 북한의 총 정제유 도입 물량을 233만 배럴로 추정한 바 있다. 이는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추정치의 절반 수준이다. 따라서 2021년 RUSI의 북한 정제유 도입 물량 추정치는 2022년 3월에 발표될 예정인 UN 안보리 보고서의 추정치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북한의 정제유 총 도입량은 2020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0)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시점(2022년 1월 중순) 기준.

31) Byrne *et al.*(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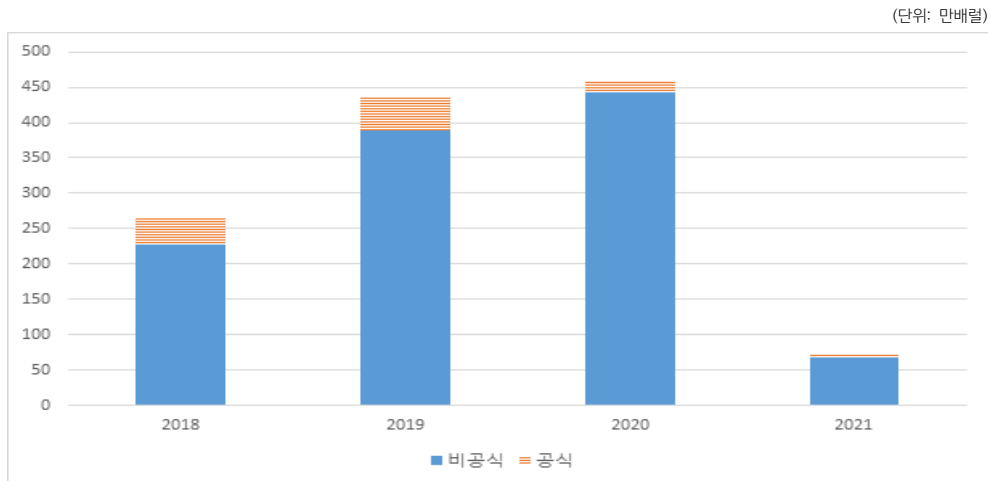
32) 김석진(2021).

33) 대북제재 결의안 제2397호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 물량을 연간 50만배럴로 설정하였고, UN 회원국들은 공식적으로 수출하는 정제유 수입 물량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각 회원국들이 보고한 정제유 수출 물량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supply-sale-or-transfer-of-all-refined-petroleu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4) RUSI and C4ADS(2021).

[그림 4]를 통해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정유제품 공식 도입량은 비공식 도입량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선박 간 환적 등 비공식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공식 물량으로만 북한의 정유도입 물량을 파악하게 될 경우 북한의 석유제품 수급 실상과는 멀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북한의 정유제품 총 도입 물량 추정치(공식과 비공식 물량을 더한 것)는 2019~20년에 약 450만배럴로 나타나 제재 이전 수준인 2016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1년에는 북한의 총 정유제품 도입 물량이 70만배럴로 나타나 이전의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수치는 대북제재의 수입 한도인 50만배럴을 초과하는 값이긴 하지만 2019~20년 도입물량에 비하면 크게 하락한 것이다. 물론 정유제품의 공급만 줄어든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간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상당 부분 제한되었기에 석유제품의 수요 역시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4] 북한의 정유제품 도입 물량



주: 비공식 도입 물량의 각 연도별 기간은 다음과 같음. 2018년: 1.1~8.18, 2019년: 1.1~10.31, 2020년: 1.1~9.30, 2021년: 1.1~11.30.

자료: 비공식 도입 물량은, 2018~20년은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각년도(S/2019/171, S/2020/151, S/2021/211), 2021년은 RUSI 보고서를 인용(<https://rusi.org/explore-our-research/publications/commentary/north-koreas-oil-terminals-com-e-back-life-imports-breach-unsc-cap>). 공식 도입 물량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supply-sale-or-transfer-of-all-refined-petroleum>).

V. 2021년 북한의 대외교역 평가와 2022년 전망

북한은 국경봉쇄를 2년 가까이 지속하는 등 세계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방역 정책은 북한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나 대외무역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2021년 북한의 대중 무역액은 3.2억달러로 나타나 붕괴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2020년의 59%에 그쳤다. 이는 제재 이전 일반적인 무역 상황이라 할 수 있는 2016년 무역액의 5%밖에 되지 않는 수준으로 제재와 코로나19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보여주는 수치이다. 2021년 북한의 대중수출은 전년과 비교해 20%가량 증가했으나, 대중수입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는 2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54%가량 감소하였다.

2021년 북한의 대중수출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기 에너지의 수출 증가와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 가발, 가수염 등 대표적인 임가공 상품의 수출 감소라는 특징이 나타났다. 또한 텅스텐, 흑연, 몰리브덴 등 산업 생산의 중간재로 활용되는 상품의 수출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대북제재와 국경봉쇄로 산업 중간재 수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부 산업 수요에 우선 대응하기 위해 관련 품목의 수출이 감소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북한의 대중수입은 원료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완제품에 가까운 품목의 비중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플라스틱 원료의 수입 증가와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 감소, 천연고무 및 합성고무의 수입 증가와 고무 타이어의 수입 감소, 대두의 수입 증가 및 대두유의 수입 감소 등 제품의 수입은 줄이고 관련되는 원료의 수입은 증가시키는 국산화 전략의 모습이 나타난다. 또 다른 특징은 쌀, 옥수수, 밀가루, 조미료 등 곡물과 필수 식료품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 2020년에 수입이 크게 줄었음에도 관련 상품의 수입이 상당 정도 유지되었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2021년 북한의 비공식무역은 작년과 비교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경봉쇄 조치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둔 육로를 통한 비공식무역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를 유지했을 것이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와 북한의 밀수를 감시하고 있는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의 밀수출과 정제유 밀수입을 포함하여 2021년 북한의 비공식 무역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나아질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북·중 국경봉쇄가 풀린다면 북한의 대외무역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 국경봉쇄

기조를 완화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북한 당국은 2021년 연말에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방역을 최우선 국가의제로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지난 10일 북한의 노동신문은 '통제 위주의 방역'에서 '선진적 방역'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³⁵⁾ 해당 보도 이후 일주일의 지난 2022년 1월 17일에는 2년 만에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어 생필품과 의약품 등을 싣고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보도³⁶⁾가 있었다. 이를 두고 국경봉쇄가 본격적으로 완화되어 교역이 재개될 것인지 아니면 설날, 광명성절 등 북한의 명절을 대비한 일시적 차원의 물자 확보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만약 전자가 맞다면 북한의 대외무역은 2021년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보건 방역 체계가 취약한 상황에서 오미크론 등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이 여전히 유행하고 있기에 최근의 화물열차 운행 재개를 특수한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2년 동안 굳게 잠겨 있던 국경의 문이 일시적이거나 열렸다는 점에서 향후 북중교역 재개에 대한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북한의 대외무역 재개 여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만 달려있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대외무역은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경이 개방되어 무역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의 수출은 크게 늘기 어렵다. UN 안보리 대북제재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의 거래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품 수입에 대한 요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외화가 필요할 것이고,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외화 수급에 대한 우려로 국경봉쇄를 유지하거나 수입을 통제하는 등 국경을 제한적으로만 개방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장형수(2021)는 2017~19년 기간 동안 북한의 외화수급 적자를 29억달러로 추산하였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축적하고 있던 외화보유액은 크게 감소했을 것이다. 장형수(2021)에 따르면 2020년에 무역수지 적자가 대폭 줄어들어 외화수급은 균형을 맞추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결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대북제재 이후 외화보유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수입을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시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자연스레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멈춰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2021년에도 국경봉쇄가 유지되며 수출과 수입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고, 무역수지 적자는 2020년보다 감소하였다. 다시 말해 북한의 국경봉쇄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이나, 외화보유액 감소를 막는 장치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도 석탄 밀수출, 모래 밀수출, 어업권 판매, 사이버 공격 등이 지속되는

35) 『연합뉴스』, 「북한 "통제 위주에서 선진적·인민적 방역으로 이행"」, 2022. 1. 11.

36) 『자유아시아방송』, 「북중 화물열차 운행... "생필품 부족·내부 정치일정 고려됐을 것"」, 2022. 1. 17.

이유가 북한의 외화수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2020년 10월 이후 북한의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달러화와 위안화의 환율이 비정상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 역시 북한 당국의 외화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시장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춰 북한 당국이 민간이 보유한 외화를 흡수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뚜렷한 근거가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돈표 발행 등 유사한 목적의 다양한 시도가 포착되고 있어 일부 설득력이 있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22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국경봉쇄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상황뿐 아니라 북한 당국이 통제하는 외화 보유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화 수급을 위한 북한의 비공식무역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감시망을 회피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규철, 「코로나19가 북한의 무역에 미친 영향」,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1월, 2021.
- 김석진,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그 경제적 의미」, 『Online Series』, CO21-12, 2021.
- 김병연, 「북한의 외화흡수 작전과 김여정의 ‘실천」」, 중앙시평, 2021. 10. 13.
- 농촌진흥청, 「북한, 올해 식량작물 440만톤 생산…전년대비 24만톤 감소」, 보도자료, 2020. 12. 18.
- _____, 「올해 북한 식량작물 469만톤 생산, 전년 대비 29만톤 증가」, 보도자료, 2021. 12. 17.
- 『뉴데일리』,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중국 전력난 때문에 북한 석탄 밀수출 증가할 것”」, 2021. 10. 14.
- 『동아일보』, 「“北서 담배는 ‘돈’이란다”…‘담배 천국’ 북한 이야기[송홍근 기자의 언박싱 평영]〈6〉」, 2019. 12. 9.
- _____, 「北, 국경폐쇄에도 최고위층 위해 비타민·로열젤리 수입[주성하의 북카페]」, 2021. 8. 29.
- 북한경제연구센터, 「북한의 역(逆)달러라이제이션: 실태, 함의 그리고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11월, 2021.
- 이석기,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평가와 시사점」, 『산업경제분석』, 2021년 1월, 2021.
- 『연합뉴스』, 「북한 “통제 위주에서 선진적·인민적 방역으로 이행”」, 2022. 1. 11.
- 『자유아시아방송』, 「중국 전력난에 북 무역회사들 석탄 밀수출로 외화벌이 증가」, 2021. 10. 8.
- _____, 「대북제재위 “북 규소철 대중 수출은 명백한 제재위반”」, 2021. 10. 20.
- _____, 「북중 화물열차 운행…“생필품 부족·내부 정치일정 고려됐을 것”」, 2022. 1. 17.
- 장형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2016~2020년 북한 외화수급에 미친 영향」, 이석 편, 『대북제재의 효과와 북한의 경제적 미래』, 연구보고서, 근간, 2021.
- 정승호, 「2021년 시장물가와 환율 추세와 특징」, 『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1월, 2022.
- 정은이, 「김정은 시기 식량증산과 격차의 ‘엇박자」」, 『Online Series』, CO20-22, 2020.
- 『중앙일보』, 「[이영종의 평양오디세이] “자제 생산 담배 브랜드만 수백 종류”…북한은 흡연 천국」, 2019. 10. 4.

- _____, 「중국, 호주 혼내려다 되레 부메랑…석탄값 연일 최고치」, 2021. 10. 15.
- _____, 「北, ‘유엔 제재’ 페로실리콘 거래 지속…중국 수출액 절반 넘어」, 2021. 12. 21.
- 통계청, 「통계로 분석한 북한무역 특징과 추이」,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19.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분석」, 『Online Series』, CO 22-01, 2022.
- 『데일리NK』, 「北, 국경통제 강화 지시에 달려 환율 ‘뚝’…무역재개 포기 분위기」, 2021. 11. 25.
- KOTRA, 「2020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2021.

〈해외문헌〉

- FA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od Supply and Demand Outlook in 2020/21(November/October),” GIEWS Update, 2021.
- Joe Byrne, James Byrne and Giangiuseppe Pili, *North Korea’s Oil Terminals Come Back to Life as Imports Breach UNSC Cap*, RUSI, 2021.
- RUSI and C4ADS, *Black Gold: Exposing North Korea’s Oil Procurement Networks*, 2021.

〈웹사이트〉

- 데일리NK 북한시장동향(<https://www.dailynk.com/北장마당-동향>, 검색일: 2022. 1. 21).
- 중국해관통계(<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2. 1. 21).
- 한국무역협회(<https://stat.kita.net/newMain.screen>, 검색일: 2022. 1. 21).
-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각 년도(S/2019/171, S/2020/151, S/2021/211, S/2021/777)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panel_experts/reports, 검색일: 2022.1.21).
-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1718/supply-sale-or-transfer-of-all-refined-petroleum>, 검색일: 2022. 1. 22).